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3. No. 5, pp. 435-443, 2022
e-ISSN 2713-6353
DOI : https://doi.org/10.15207/JKCS.2022.13.05.435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감정노동, 회복탄력성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오두남
호서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The Impact of Emotional Labor of Clinical Practice and Resilience on Professional Identity in Nursing Students

Doonam Oh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Hoseo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감정노동과 회복탄력성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는 각각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2개 대학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3, 4학년 간호대학생 142명을 대상으로 2021년 9월에서 12월까지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t-test, One-way ANOVA, Scheffé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Multiple regression 등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진로정체감은 일반적 특성 중 전공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F=19.97, $p<.001$). 감정노동과 진로정체감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r=-.35, $p<.001$), 회복탄력성과 진로정체감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r=.30, $p<.001$). 진로정체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전공만족도와 감정노동으로 나타났고(β=-.268, $p<.001$), 이 요인들의 진로정체감에 대한 설명력은 29.3%로 나타났다. 본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 향상을 위해서는 간호전공만족도 향상 전략과 임상실습 시 경험하는 감정노동 대처능력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개발되어야 하겠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전공만족도, 감정노동, 회복탄력성, 진로정체감

Abstract This study was to conducted to explore predictors of emotional labor of clinical practice and resilience on professional identity in nursing student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to December, 2021, for 142 nursing students in Seoul and Gyeonggi-do.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Satisfaction of major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professional identity (F=19.97, $p<.001$). Professional identity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resilience (r=.30, $p<.001$) and negatively associated with emotional labor (r=-.35, $p<.001$).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showed that satisfaction of major and emotional labor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β=-.268, $p<.001$) in predicting professional identity with the explanatory power of 29.3%. To enhance professional identity in nursing studen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strategies to improve their satisfaction of major and to provide educational programs for coping skill in managing their emotional labor in clinical practice.

Key Words : Nursing Students, Major satisfaction, Emotional labor, Resilience, Professional identity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Academic Research Fund of Hoseo University in 2021(20210436).
*Corresponding Author : Doonam Oh(doonoh@hoseo.edu)
Received March 14, 2022 Revised April 6, 2022
Accepted May 20, 2022 Published May 28, 2022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간호협의회(ICN)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통해 간호 인력의 가치가 더 명확해졌다고 평가하면서, '2020 세계 간호현황 보고서'에서 간호인력이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10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한 바 있다[1]. 이 중에는 간호사 교육과 고용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간호사 교육과 실습 표준화 등과 같은 간호교육과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급변하는 과학과 의료 환경의 발달로 인한 다양한 건강요구에 부합하는 전문인력의 양성에 있어 간호교육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2].

간호학은 일반적으로 간호사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고 실제 간호 상황에 적용하는 방법과 기술을 익히는 실용적인 학문이다[3]. 특히 간호교육은 이론적인 지식교육에 더하여 표준화된 임상수행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 임상 간호사의 역할을 관찰하고 적용할 수 있는 실무 현장 교육이라 할 수 있는 임상실습교육을 필수 교육과정으로 진행해야 한다.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익숙한 강의실을 벗어나 다양한 간호실무현장에서 낯선 환자와 의료진을 만나면서 임상실습을 하게 되는데, 이는 간호대학생들에게 이전에 학교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감정노동에 직면하게 한다[4]. 임상 감정노동이라는 것은 의료진과 환자 및 보호자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규칙이나 사회적 기대 때문에 자신의 감정에 인위적인 변화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5]. 간호대학생은 실습환경에서 환자와 의료진과의 관계형성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예비간호사로서 기대되는 행동과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실습에 임하게 된다. 이러한 간호대학생의 감정노동 경험은 역할 적응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있다[6].

감정노동은 본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에서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고 조절하는 인위적인 행동으로서 관찰과 훈련을 통해 학습이 가능하다고 하였다[7]. 한편, 회복탄력성이란 고난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지속적인 과정으로 정의되는 것으로, 학습이나 외부적인 지지 등의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변화하고 성장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8]. 일반적으로 익숙하지 못한 환경에 처해 있는 대상자들에게는 유연하게 적응하고 긍정적으로 대처하며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해결책이 요구되는데, 이 때 회복탄력성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회복탄력성은 개인으로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스트레스의 영향을 완화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으로, 선천적이고 기질적 특징이 아니라 개인과 환경을 통해 점진적으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심리적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였다[9]. 즉, 감정노동을 경험하는 임상실습현장에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면서 문제와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간호대학생들에게 회복탄력성은 중요한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10].

선행연구들에서 대상자들의 회복탄력성이 높은 경우 임상실습에 대한 스트레스를 잘 이겨내고[11], 전공 및 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뿐 아니라 임상수행능력도 높게 나타났음을 보여주었다[12]. 또한 회복탄력성은 간호대학생들의 임종간호태도나 실습스트레스 등과 같은 여러 간호에 대한 경험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하였으며[13],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높은 감정노동을 수행할 수 밖에 없는 근무환경에서 심리적 안녕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중재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연구가 있었다[14]. 따라서 간호대학생에게도 임상실습 시 경험하는 감정노동과 회복탄력성의 정도와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간호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간호학생이 교육과정을 충분히 수료하여 간호사로서 전문직관을 가지고 임상실무를 충분히 해나가는 인재양성에 있다면[15], 간호교육기관에서는 간호대학생들에게 적합한 진로정체감을 확립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간호대학생들은 비교적 타 전공 학생에 비해 취업이 보장되었다는 인식이 있지만, 과중한 학습량과 임상실습의 이수, 충분한 지식과 경험 부족 및 역할 적응에 대한 어려움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학교생활과 진로에 흥미를 잃거나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등 부적응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 진로정체감에 혼란을 겪기도 한다[16]. 주로 간호대학생은 실습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이론과 실무교육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으로 인해 이상적인 간호직과 실제의 간호직간에 차이를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진로정체감의 혼돈을 경험하기 시작하게 된다고 하였다[17].

즉, 간호학생의 임상 실습경험은 졸업 후 현장에서의 업무수행과 적응을 위한 준비단계로 진로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가지게 하는 요인이 되므로[18], 임상실습에서 경험하는 감정노동과 간호학생의 회복탄력성이 간호학생의 직업 적응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진로정체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해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전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주로 간호대학생들의 감정노동, 전공만족도, 업무스트레스 등이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준다거나[4,19], 감정노동이나 회복탄력성이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20]. 그러나, 간호대학생들에게 있어 실습동안 더욱 증가하는 감정노동과 환경의 변화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 강화요인으로 볼 수 있는 회복탄력성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학생들의 진로정체감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상실습을 경험하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감정노동과 회복탄력성이 진로정체감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하며, 이를 통해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중재개발의 근거와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감정노동, 회복탄력성, 진로정체감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는데 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감정노동, 회복탄력성, 진로정체감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정체감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감정노동, 회복탄력성, 진로정체감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감정노동, 회복탄력성, 진로정체감 정도에 대해 파악하고, 이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간호대학생의 감정노동, 회복탄력성이 진로정체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연구대상자는 임상 실습을 최소 3주 이상 경험한 3, 4학년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이해하고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를 선정기준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진로정체감 관련 선행연구결과[19]를 고려하여 효과크기 .15, 검정력 .90, 유의수준 .05으로 하여 예측변수 8개로 하였을 때 G-power 3.1.9 프로그램[21]에서 130명의 표본 수가 산정되었다. 중도탈락률 약 10%를 고려하여 15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이 중 응답내용이 부정확하거나 불분명한 8부를 제외한 최종 142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감정노동

감정노동은 개인이 효과적인 직무수행이나 조직 내 적응을 위하여 자신이 경험하는 실제 감정상태와 조직의 감정표현 규범에 의해 요구되어지는 감정표현에 차이가 나타날 때 감정을 조절하려고 하는 개인적 노력을 의미하며[5], 본 연구에서는 Morris와 Feldman [22]이 개발한 감정노동 도구를 Song [3]이 번역하여 사용한 도구를 Nam과 Kim [4]이 간호학생의 임상실습현장에 맞게 수정 보완한 도구를 저자의 승낙을 받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9문항으로 3개의 하부영역 즉, 임상실습 감정노동의 빈도(3문항), 임상실습 감정표현 규범에 대한 주의정도(3문항), 임상실습 감정의 부조화(3문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감정노동이 높음을 의미한다. Nam과 Kim [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77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71이었다.

2.3.2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은 고난을 겪고 포기하지 않는 지속적인 과정을 의미하며[8], 본 연구에서는 Yang 등[11]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회복탄력성 도구를 저자의 허락을 받아 사용하였다. 각 하위영역은 자신감(3문항),

긍정성(4문항), 대처능력(2문항), 감정조절능력(4문항), 조직적 스타일(3문항), 관계성(4문항), 사회적지지(4문항)로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점수 범위는 24-12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의 Cronbach's α는 .7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87이었다.

2.3.3 진로정체감

진로정체감은 직업적 영역에 한정하여 적용한 개념으로서 자아탐색 기회를 통하여 올바른 직업세계의 이해로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자아정체감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릴 수 있으며, 개인의 직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목표, 흥미, 능력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적인 청사진이다[23]. 본 연구에서는 Holland 등[23]이 개발한 진로상황검사(My Vocational Situation)의 하위척도인 진로정체감 척도 18문항을 Kim [24]이 한국 상황에 맞게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1점 '매우 그렇다', 2점 '다소 그런 편이다', 3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4점 '전혀 그렇지 않다' Likert 4점 척도로, 점수는 역환산하여 계산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 [2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92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도 .92이었다.

2.4 자료수집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A와 B에 각각 소재한 2개 대학에서 임상 실습을 경험한 간호학과 3, 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각각 자료수집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H 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1041231-210817-HR-129-01)을 받은 후 시행되었다. 훈련받은 연구보조원이 각 대학의 휴게실이나 승인받은 강의실에서 연구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동의한 대상자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작성하도록 하였다. 연구윤리를 고려해 설문지에 연구 참여 동의서를 첨부하여 설문지 작성 시 사전에 직접 서명하도록 하였으며, 연구 동의서에는 연구 참여자의 권리, 비밀 보장 및 익명성, 연구 참여의 철회 가능성, 연구 종료 후 자료 폐기 등의 윤리적 내용을 설명하였다. 설문지 작성 시간은 약 15분 이내였으며, 설문에 응답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사례품을 제공하였다.

2.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로 분석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정체감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One way ANOVA로 확인한 후, Scheffé test로 사후검정하였다. 대상자의 감정노동, 회복탄력성, 진로정체감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하여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사용하였고, 대상자의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감정노동, 회복탄력성, 진로정체감 정도

연구대상자 총 142명의 평균연령은 23.3세이었으며, 21세~25세 123명(86.6%), 26세~30세 13명(9.2%), 31세 이상 4명(2.8%), 20세 이하 2명(1.4%)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4학년 132명(93.0%), 3학년 10명(7.0%)이었고, 성별은 여성이 90.1%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종교는 무교가 63.4%이었고 나머지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하는 경우가 70.4%, 보통이 28.2%이었고 불만족은 1.4%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들의 임상실습기간은 17주~24주가 69.0%이었고 평균 기간은 21.57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N=14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Grades	3	10	7.0	
	4	132	93.0	
Ages	≤20	2	1.4	23.27±2.81
	21-25	123	86.6	
	26-30	13	9.2	
	≥31	4	2.8	
Gender	Male	14	9.9	
	Female	128	90.1	
Religion	Christianity	32	22.5	
	Catholic	15	10.6	
	Buddhism	5	3.5	
	None	90	63.4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100	70.4	
	neutral	40	28.2	
	Dissatisfied	2	1.4	
Period of clinical practice (Weeks)	3-8	10	7.0	21.57±4.67
	9-16	15	10.6	
	17-24	98	69.0	
	≥25	19	13.4	

연구대상자의 임상실습 감정노동 정도는 27.39±4.37이었고, 회복탄력성은 92.30±9.49이었으며, 진로정체감은 52.07±9.46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N=142)

Variables	M±SD	Range
Emotional labor	27.39±4.37	9-45
Resilience	92.30±9.49	24-120
Professional Identity	52.07±9.46	18-72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정체감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의 진로정체감은 전공만족도(F=19.97,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분석 결과 전공에 만족하는 경우가 보통이나 불만족보다 진로정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Differences in professional identity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N=14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SD	t/F(p)	Scheffé
Grades	3	10	51.70±8.34	-0.13 (.898)	
	4	132	52.10±9.57		
Ages	≦20	2	52.50±3.54	1.04 (.378)	
	21-25	123	51.86±9.35		
	26-30	13	51.46±9.78		
	≧31	4	60.25±13.00		
Gender	Male	14	55.43±8.07	1.40 (.163)	
	Female	128	51.70±9.56		
Religion	Christianity	32	54.00±9.35	1.17 (.325)	
	Catholic	15	54.13±10.41		
	Buddhism	5	53.80±5.93		
	None	90	50.94±9.45		
Major satisfaction	Satisfied[a]	100	54.92±8.72	19.97 (<.001)	a>b,c
	Neutral[b]	40	45.58±7.50		
	Dissatisfied[c]	2	39.50±9.19		
Period of clinical practice (Weeks)	3-8	10	51.70±8.34	0.13 (.941)	
	9-16	15	50.73±8.00		
	17-24	98	52.20±9.17		
	≧25	19	52.63±12.72		

3.3 임상실습 감정노동, 회복탄력성, 진로정체감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임상실습 감정노동, 회복탄력성, 진로정체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임상실습 감정노동은 회복탄력성(r=-.09, p=.264), 진로정체감(r=-.35, p<.001)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회복탄력성과 진로정체감(r=.30, p<.001)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임상실습 감정노동과 회복탄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s among emotional labor, resilience, and professional identity (N=142)

Variables	Emotional labor	Resilience
	r (p)	
Emotional labor	1.00	
Resilience	-.09 (.264)	1.00
Professional Identity	-.35 (<.001)	.30 (<.001)

3.4 진로정체감의 영향요인

대상자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전공만족도, 임상실습 감정노동, 회복탄력성을 투입하여 진로정체감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회귀모형 분석을 위하여 다중공선성, 잔차를 진단한 결과 다중공선성은 공차한계(Tolerance)가 .816~.994로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는 1.006~1.226으로 기준치 10 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또한 Durbin-Watson 통계량은 2.102로 기준값 2에 근접하고 있어 자기 상관의 문제가 없었고 잔차분석 결과에서도 모형의 선형성, 정규성, 등분산성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 분석 결과,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전공만족도를 가변수 처리하여 입력한 결과 진로정체감에 대한 설명력은 22.3%의 영향력을 보였다(R^2=.223, F=19.965, p<.001).

2단계에서 임상실습 감정노동을 입력한 결과,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 감정노동의 진로정체감에 대한 설명력은 29.3%로 증가하였다(R^2=.293, F=19.079, p<.001).

3단계로 회복탄력성을 투입한 결과, 전공만족도, 임상실습 감정노동, 회복탄력성은 진로정체감을 31.1%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2=.311, F=15.445, p<.001). 그러나 회복탄력성은 진로정체감과 유의한 영향력이 없었고,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 감정노동(β=-.268 p<.001)은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Table 5).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professional identity

Variables	B	SE	β	t	p	R^2	Adj R^2	F(p)
Step 1						0.223	0.212	19.965 (<.001)
(intercept)	54.920	0.840	-	65.402	<.001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reference)						
Neutral	-9.345	1.571	-0.446	-5.948	<.001			
Dissatisfied	-15.420	5.997	-0.193	-2.571	.011			
Step 2						0.293	0.278	19.079 (<.001)
(intercept)	70.636	4.326	-	16.327	<.001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reference)						
Neutral	-8.170	1.537	-0.390	-5.315	<.001			
Dissatisfied	-15.315	5.741	-0.191	-2.668	.009			
Emotional labor	-0.586	0.158	-0.270	-3.697	<.001			
Step 3						0.311	0.291	15.445 (<.001)
(intercept)	56.918	8.490	-	6.704	<.001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reference)						
Neutral	-7.004	1.646	-0.334	-4.256	<.001			
Dissatisfied	-14.790	5.697	-0.185	-2.596	.010			
Emotional labor	-0.581	0.157	-0.268	-3.700	<.001			
Resilience	0.144	0.077	0.144	1.872	.063			
Tolerance=0.816~0.994, VIF=1.006~1.226, Durbin-Watson=2.102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이 임상실습동안 겪게 되는 감정노동, 회복탄력성, 진로정체감 정도를 알아보고, 감정노동과 회복탄력성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 확립에 도움을 주는 중재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을 하면서 조직의 감정표현 규범과 본인의 감정표현에 차이가 있을 때 감정을 조절하려고 하는 노력인 감정노동 점수가 27.39점(3.04점/5점)으로 임상실습동안 평균 이상의 감정노동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Park과 Song [20]의 3.40점이나, Nam과 Lee [18]의 3.44점보다는 낮게 나왔고,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감정노동 3.24점보다도[25] 낮게 나왔다. 간호대학생의 감정노동은 임상실습지의 장소나 시기 등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18], 본 연구에서 다른 선행연구보다 점수가 다소 낮게 나온 것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이전에 없던 비대면 방식의 실습운영이 대면 임상실습을 대체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환경 적응에서 경험하게 되는 감정노동의 감소가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간호학생들은 실제 대면 임상실습기간 동안에는 일정 주기마다 낯선 병원에 적응해야 하고, 환자, 보호자, 그리고 의료진들과 관계를 새롭게 형성하고 소통함에 있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데, 비대면 실습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환경적응과 의사소통으로 인한 감정노동의 기회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간호대학생들은 임상실습동안 의료전문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에서 경험되어지는 감정노동 정도가 평균 이상으로 파악되므로,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의사소통 기술과 치료적인 대인관계 형성을 위한 기초 교육과정이 임상실습 전에 다양한 학습방법을 통해 제공될 필요는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 회복탄력성 점수는 92.30점(3.84점/5점)이었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Park과 Song [20]의 3.60점, Lee 등

[26]의 3.61점보다 다소 높게 나왔고,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유사 도구를 사용한 연구 Park과 Chung [27]의 3.23점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회복탄력성은 선천적인 기질이라기보다는 훈련을 통해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27], 일반적으로 간호대학생은 저학년부터 간호학 교육과정에서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긍정적으로 대처하게 하는 기회를 통해 회복탄력성이 점진적으로 훈련이 되어감에 따라 비교적 평균 이상의 회복탄력성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은 52.07점(2.89점/4점)이었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Jo 등[28]의 2.54점보다 높게 나타났고, 유사 도구를 사용한 Jung 등[29] 2.65점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진로정체감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자기 확신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높은 진로정체감은 대학생활 뿐 아니라 졸업 후 직업 개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진로정체감은 선행연구들에서[15,16,19] 학년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어느 정도 본인의 직업이나 진로에 대한 자아정체감이 형성된 4학년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선행연구들에서의 진로정체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 요인의 하나로 생각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진로정체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준 일반적 특성은 전공만족도로 나타났다. 즉, 자신의 간호 전공에 만족하고 있는 간호학생들은 보통이나 불만족인 학생들보다 높은 진로정체감을 보여주었다. 이는 다른 선행연구에서도[15,18]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진로정체감은 개인의 직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흥미나 능력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적인 청사진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24], 자신의 전공에 대해 만족한다는 것은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자아정체감에 확신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 확립을 위해서는 간호교육기관에서의 학생 전공만족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전략적인 노력이 우선될 필요도 있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감정노동, 회복탄력성, 진로정체감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임상실습 시 감정노동은 진로정체감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회복탄력성과 진로정체감과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학생들이 조직에서의 감정표현 규범과 본인의 감정표현에 차이를 많이 경험할수록 진로정체감은 낮게 나타났고, 힘든 환경에서도 유연하고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높을수록 진로정체감도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임상실습기간 중 경험하게 되는 부정적인 감정노동이 간호대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졸업 후 임상현장으로 가려하는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전공만족도, 임상실습 감정노동, 회복탄력성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일반적 특성 중 진로정체감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전공만족도는 진로정체감에 대해 22.3%의 설명력을 보였고, 2단계에서 전공만족도와 감정노동은 진로정체감에 대해 29.3%의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이후 3단계로 회복탄력성 요인까지 투입한 결과, 전공만족도, 감정노동, 회복탄력성 3가지 요인의 진로정체감에 대한 설명력은 31.1%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주요변수였던 회복탄력성은 진로정체감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회귀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요인으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에는 전공만족도와 감정노동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본 결과는 임상실습 감정노동이 직업정체감 형성에 영향요인이라고 밝힌 Nam과 Lee [1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이 임상수행능력이나 스트레스 관리에는 주요한 영향요인임을 밝히는 연구는 있었지만[19,20],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회복탄력성의 진로정체감에 대한 영향요인을 살펴본 선행연구는 없어 직접적인 비교분석은 어려웠다.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 확립에는 간호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유지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는 교과 및 비교과과정이 개발되어 저학년부터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바람직한 진로정체감 확립을 위해서는 회복탄력성 훈련 중재에 앞서 감정노동 관리 능력 향상 중재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임상실습 시 경험할 수 있는 감정노동을 최소화하고 이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켜주는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중재의 예시로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거나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기술과 같은 기초교육들이

임상 실습 사전 교육으로 제공되어야 하겠다.

더 나아가 간호대학생들의 간호 진로에 대한 자아 정체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실습지도자로 하여금 임상 실습동안 간호학생의 감정노동에 대한 인식에 관심을 가지도록 안내하며, 학교에서는 학생들과의 다양한 진로 지도 및 상담 프로그램이 간호교육과정 내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경험 시 감정노동과 개인의 회복탄력성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진로정체감 확립에 도움이 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전공만족도와 감정노동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간호 전공에 대한 확신과 만족을 느끼게 하고 임상 실습동안 감정노동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간호교육과정이 저학년에서부터 교과 및 비교과 전반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횡단적 조사연구이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이전과는 달리 대면 실습의 감소나 안정적인 실습 운영이 어려웠던 시점에 이루어진 연구로, 본 연구 결과를 간호대학생 전반과 일반적인 임상실습 상황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제한점을 가진다. 따라서 추후에는 임상실습 시의 감정노동이 실습 환경과 특성이 반영되어 설명될 수 있도록 연구의 범위와 변수를 확대한 연구가 시행되기를 제언한다. 또한,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과 학생들의 감정노동 관리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그것이 진로정체감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에 대한 추후 연구도 후속되기를 제언한다.

REFERENCES

[1]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0). *State of the World's Nursing; Investing in Education, Jobs and Leadership*. World Health Organization. https://apps.who.int/iris/handle/10665/331677.

[2] N. S. Ha & M. S. Choi.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leadership styles and self-esteem,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1(1)*, 13-21.

[3] J. H. Song & M. W. Kim. (2013). Study on clinical education for nursing in hospitals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9(3)*, 251-264. DOI : 10.5977/jkasne.2013.19.2.251

[4] M. H. Nam & H. O. Kim. (2016). Relation between clinical practice emotional labor, self 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of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1),* 263-273. DOI : 10.14400/JDC.2016.14.1.263

[5] A. R. Hochschild. (1979). Emotion work, feeling rules, and social structur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5(3)*, 551-575.

[6] H. S. Park, Y. J. Bae & S. Y. Jeong. (2002). A study on self-esteem, self-efficacy, coping methods, and the academic and job-seeking str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1(4)*, 621-631.

[7] A. A. Grandey. (2000). Emotion regulation in the workplace: a new way to conceptualize emotional labor.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5(1)*, 95-110.

[8] B. M. Gillespie, W. Chaboyer & M. Wallis. (2007). Development of a theoretically derived model of resilience through concept analysis. *Contemporary Nurse, 25(1-2)*, 124-135.

[9] M. McAllister & J. B. Lowe. (2011). *The resilient nurse: empowering your practice*. New York: Springer.

[10] R. M. Earvolino. (2007). Resilience: a concept analysis. *Nursing Forum, 42(2),* 73-82. DOI : 10.1111/j.1744-6198. 2007.00070.x

[11] Y. H. Yang, E. M. Kim, M.Yu, S. M. Park & H. Y. Lee. (2015). Development of the resilience scale for Korean nursi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7(3),* 337-346. DOI : 10.7475/kjan.2012.27.3.337

[12] H. J. Lee, H. Y. Lee & K. J. Kang. (2017). The effect of clinical performance,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and career maturity upon resili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Wellness, 12(1)*, 425-437. DOI : 10.21097/ksw.2017.02.12.1.425

[13] Y. G. Noh. (2017). Influence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actice stress, emotional labor and burnout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3(5), 461-470.
DOI : 10.11111/jkana.2017.23.5.461

[14] Y. E. Kwon. (2018). A study on emotional labor, resilienc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clinical nurs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2),* 339-346.
DOI : 10.5762/KAIS.2018.19.2.339

[15] J. S. Jeong, M. J. Jeong & I. Y. Yoo. (2014). Relations between satisfaction in majo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 27-36.
DOI : 10.5977/jkasne.2014.20.1.27

[16] H. Cho & G. Y. Lee. (2006). Self esteem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0(2),* 163-173.

[17] E. Y. Hong. (2017). Convergence study of mediating effect of nursing professionalis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e image and satisfaction of major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10),* 85-93.
DOI : 10.15207/JKCS.2017.8.10.085

[18] M. H. Nam & M. R. Lee. (2016). The effect of emotional labor of clinical practice, self-esteem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n professional ident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2(4),* 527-535.
DOI : 10.5977/jkasne.2016.22.4.527

[19] J. W. Oh, B. Y. Huh & M. R. Kim. (2019). The effects of nurses' work environment, emotional labor, and job stress on nursing students' perceived career identity.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1, 10(4)*, 59-74.
DOI : 10.22143/HSS21.10.4.5

[20] E. M. Park & Y. S. Song. (2019). Predictors of emotional labor and resilience on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5(3),* 357-365.
DOI : 10.5977/jkasne.2019.25.3.357

[21] F. Faul, E. Erdfelder, A. Buchner & A. G. Lang. (2009). Statistical power analyses using G*power 3.1: tests for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Behavior Research Methods, 41(4)*, 1149-1160.

[22] J. A. Morris & D. C. Feldman. (1996). The dimensions,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emotional labor.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1(4)*, 986-1010.

[23] J. L. Holland, D. C. Daiger & P. G. Power. (1980). *My vocational situation.*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y Press.

[24] B. W. Kim. (1997).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25] J. E. Ju, Y. C. Kwon & M. H. Nam. (2015). Influence of clinical nurses' work environment and emotional labor on happiness index.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1(2)*, 212-222.
DOI : 10.111111/jkana.2015.21.2.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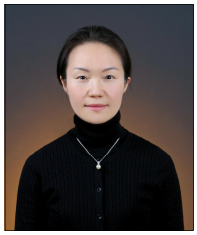
[26] Y. E. Lee, E. Y. Kim & S. Y. Park. (2017). Effect of self-esteem, emotional intelligenc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n resilience in nursing students.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3(3)* 385-393.
DOI : 10.4094/chnr.2017.23.3.385

[27] J. H. Park & S. K. Chung. (2016). Influence of emotional labor,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resilience on nursing performance in university hospital nurs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10),* 236-244.
DOI : 10.5762/KAIS.2016.17.10.236

[28] E. J. Jo, J. H. Park & K. M. Lim (2019). The convergent effect of nurses' image and major satisfaction on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7(10),* 329-337.
DOI : 10.14400/JDC.2019.17.10.329

[29] J. S. Jung, M. J. Jeong & I. Y. Yoo. (2014). Relations between satisfaction in majo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 27-36.
DOI : 10.5977/JKASNE.2014.20.1.27

오 두 남(Doonam Oh) [정회원]



· 2006년 8월 :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0년 8월 :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보건, 노인간호
· E-Mail : doonoh@hoseo.edu